

탈석탄 금융으로 탄소중립 동참... 보험업계 'ESG 바람'

보험업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불고 있다. ESG 경영에 이어 사회공헌활동까지 속속 확대해 가면서다. 다만 위험관리와 자금공급 등 주된 역할수행에 ESG 요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등 환경부와 손잡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환경교육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할 기업과 함께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다.

교보생명은 신장재 회장의 경영철학인 '사람중심 이해관계자 경영'을 기반으로 ESG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금융 계열사들과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해 전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했다. 올

교보생명 환경부와 환경교육 협력 MOU ESG 통한 지속가능경영 '탄소중립 실천'
한화생명 '2030 ESG경영전략·로드맵' '그린라이프 2030'으로 탄소절감 약속
DB생명 사회공헌활동 '플로깅' 실시
NH농협손보 'ESG 자문위원회' 운영



/유토이미지

1월에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PSI)에 가입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환경교육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환경교육 수행을 통해 임직원의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과 DB생명도 각각 '그린라이프 2030' 선언과 플로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실천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최근 '2030 ESG 경영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해 간다.

2030년까지의 ESG 경영실천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리겠다는 의미로 '그린라이프 2030'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3대 전략목표로는 ▲

친환경·친사회적 투자 비중 2배 이상 확대 ▲탄소배출량 40% 이상 감축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Diversity·Equity·Inclusion)지수 개선을 약속했다.

DB생명도 ESG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2022년 DB생명에 입사한 신입사원 및 멘토 총 34명이 참여해 약 200t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 후 분리 배출했다.

NH농협손보는 지난 5월 2022년 ESG 자문위원회 개최했다. NH농협손보는 농협금융의 ESG 경영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는 "지난해 ESG 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탄소중립 전략 및 기후리스크 평가·관리 정책 수립, 환경

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추진 등 ESG 경영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ESG 경영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가 투자한 기업이나 산업 등이 ESG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해원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넥스트 인슈어런스(III) ESG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 행에 ESG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 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美 자이언트스텝에 카드사, 자금조달 부담

카드사, 10년만에 여전채 금리 4%대 카드론 금리인상, 채무불이행 '도미노' "대비는 하지만 부실채무 등 우려"

특화 카드 출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바쁜 국내 카드사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기 때문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로서는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것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인상에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단기지금 비중 상승,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악재가 여전하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의 여신 사업 자금의 70% 이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 채로 조달한다. 카드사들 입장에서 여전채 금리가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덩달아 오른다. 여전채 금리가 4%대를 돌파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비용 증가는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나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판로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 같은 조달금리 상승은 카드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19일 기준 4.487%다.

일각에서는 카드사의 수익 위축으로 서민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대출인 '카드론'의 경우 통상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린다. 카드사가 본업인 카드론 금리를 인상하면 서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 차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일부에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카드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대손충당금 적립이다.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 카드사 7곳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총 643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7개 전업 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은 5444억원이었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비해 적립해 두는 돈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 "카드사도 금리인상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금리가 오르면 수익에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부실채무가 늘 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아이 원 자산관리' 첫 이용고객 이벤트

IBK기업은행, 내달 12일까지 실시

IBK기업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인 '아이 원(i-ONE) 자산관리' 첫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직장인우대MY통장 랜덤금리 뽑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20일 이후 'i-ONE 자산관리'를 처음으로 가입한 고객으로 i-ONE Bank(개인) 앱을 통해 '랜덤금리 뽑기 이벤트'에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선착순 1만 7000명에게 직장인우대MY통장 연 10%p 특별우대금리(1000명), 연 5%p(1000명) 및 연 1%p(1만 5000명) 특별우대금리쿠폰을 즉석 추첨을 통해 제공하며 당첨내용은 i-ONE Bank(개인) 앱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직장인우대MY통장'에 가입하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 최초



고객, 마이데이터 등의 등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품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대 연 13.9%의 금리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직장인우대MY통장은 자산관리가 필요한 직장인을 우대하는 적립식 중금 채 상품으로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한 1년 만기 적립식 상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ONE 자산관리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분석·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h수협은행-코레일테크

태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소속임직원 60여명 참여

Sh수협은행이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바다청소에 나섰다.

Sh수협은행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해안가 일원에서 'Sh사랑해(海) 봉사단 x 코레일테크 공동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에는 김진균 수협은행장과 임재익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등 양 기관 소속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가치 제고 실천을 위한 ESG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보호, 폐플라스틱 저감 등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Sh수협은행과 코레일테크 직원들이 충남 태안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Sh수협은행

양 기관 임직원들은 서산수협 산하 도항어촌계 관할 해안가 2곳에서 생활쓰레기와 폐어구 등 집적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했다.

해안가 쓰레기는 방치될 경우, 썩물을 타고 바다로 흘러간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오염의 원인

이다. 어업인들에게는 조업량 감소 및 선박사고의 원인이다.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고통을 끼친다.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이후에는 도항어촌계에 '사랑해PC'와 관련기기 등 어촌마을 정보화에 도움이 될 각종 지원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정산 기자

금융위, 9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

온·오프 병행 9월 28~30일 진행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오는 9월 28일~9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이 기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핀테크 기업 IR,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등을 운영해 투자유치·채용 등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개막식을 비롯해 전시·교육·체험관 등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운영한다.

1일차에는 주요 인사 연설 등 개막행사, 정책 설명회, 해외진출 세미나 등이 예정돼 있으며 2일차에는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와 기업 IR, 네트워킹 및업,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날인 3일차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투자 상담회, 금융 뮤지컬, 취업 멘토링 등이 예정돼 있다.

/이승용 기자